

열세 번째 날_3월 3일 (수요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태복음 12:50 개역개정>

반 만년은 함께 살았지만, 갈라진 70년 사이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흠집내고, 비방하고, 겁박하기 바빴습니다. 서로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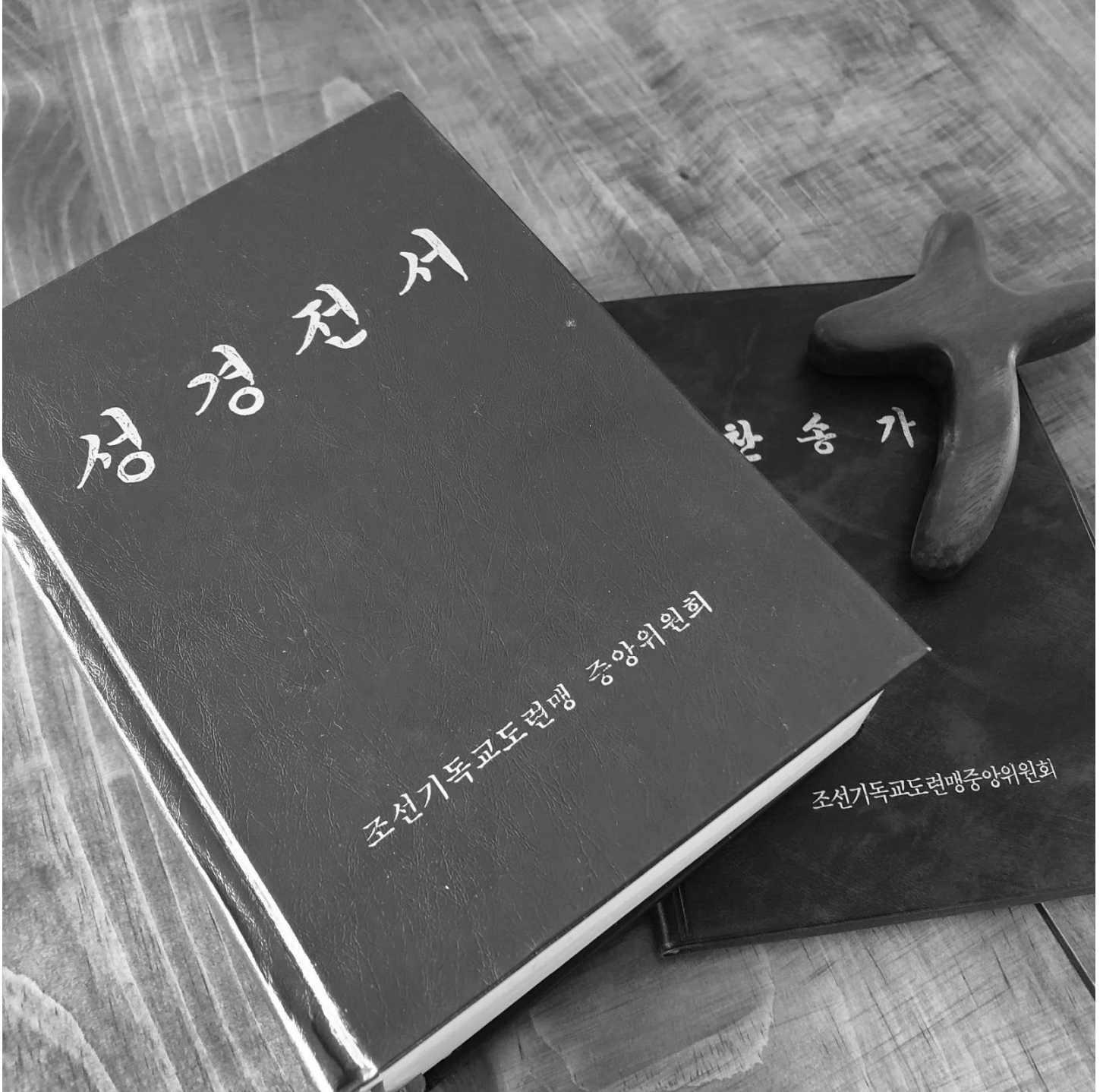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가짜 그리스도인이며, 체재 선전을 위한 교회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남북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를 위해 평양 봉수교회를 방문하여 하였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는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간절함과 진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북녘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네 번째 날_3월 4일 (목요일)

"같음"과 "하나됨"을 위하여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에베소서 4:3-5 개역한글>

우리에게 "다름"을 찾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는 나와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다름"을 찾는 것은 "나"라는 자기중심주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다"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체제가 다르지만 남과 북은 참으로 "같은 것"이 많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며, "같은" 민족이며, "같은" 역사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다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뢰의 눈으로 "같음"과 "하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다섯 번째 날_3월 5일 (금요일)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 4 - 5 개역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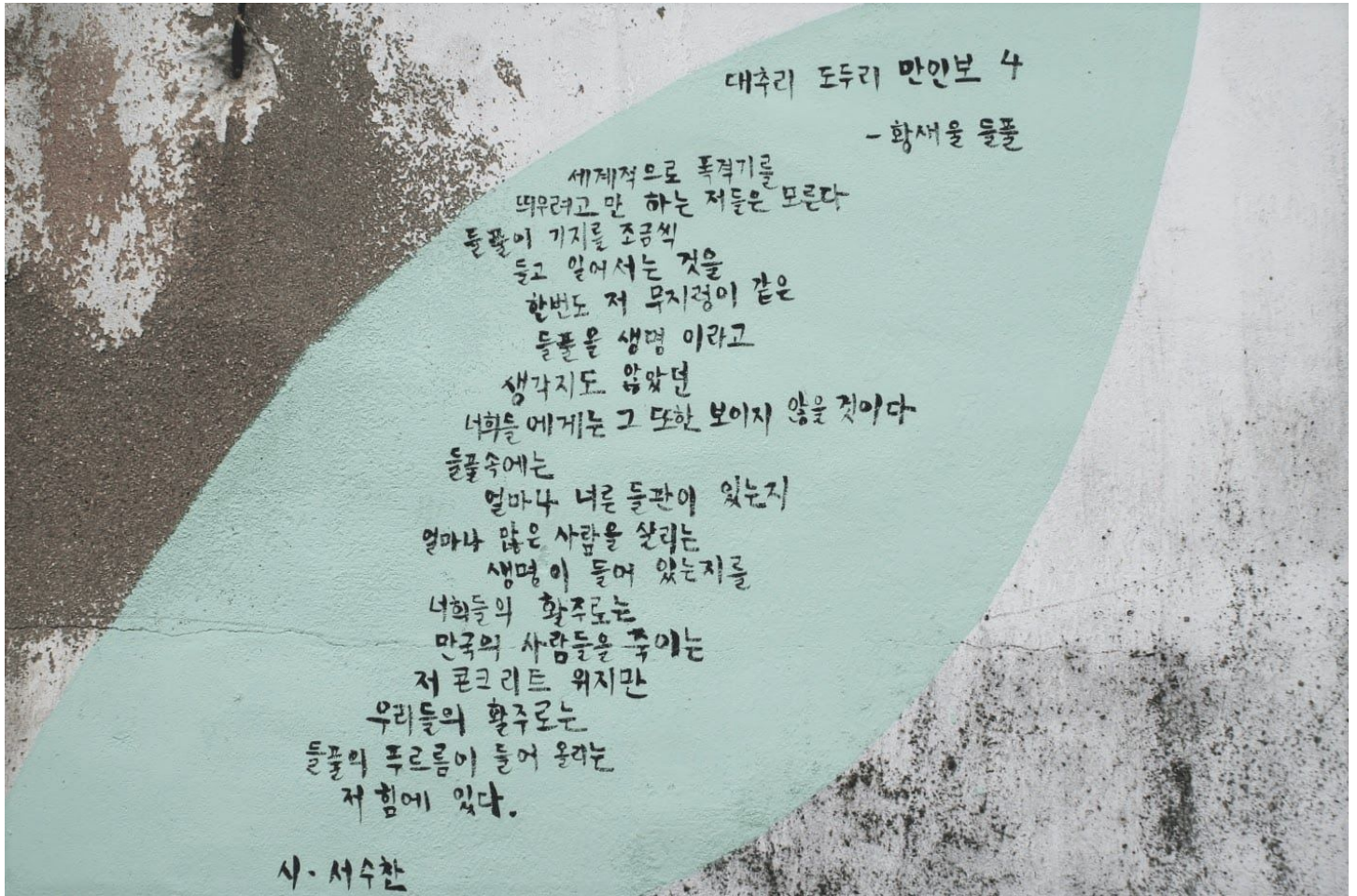
일본 교토에 가면 귀무덤 (미미즈카) 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 장수들이 조선인들을 죽이고는, 그 수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기 위해 희생자의 코를 잘라 보냈다고지요. . 코무덤이란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려서 대신 귀무덤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귀가 되었건 코가 되었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전쟁이 얼마나 철저히 우리의 인간됨을 파괴하는지...

어디 일본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베트남에는 한국군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기 위한 '만행비'가 있고, 베를린과 D.C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박물관들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전쟁이 부추기는 집단의 광기로 처참한 일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연히 서 있는 무덤과 비석은, 우리가 그리도 쉽게 야수로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섬뜩한 마음 다스리며 이사야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파괴된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 쇠붙이로 죽이는 물건 대신 먹고 살리는 도구만 만드는 날을 꿈꿉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열여섯 번째 날_3월 6일 (토요일)

들풀 씨앗 같은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 <누가복음 13: 18 - 19 개역개정>

세계적으로 폭격기를 띄우려고 하는 저들은 모른다
 들풀이 가지를 조금씩 들고 일어서는 것을
 한번도 저 무지렁이 같은 들풀을 생명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너희들에게는 그 또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들풀 속에는 얼마나 너른 들판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 있는지를
 너희들의 활주로는
 만국의 사람들을 죽이는
 저 콘크리트 위지만
 우리들의 활주로는
 들풀의 푸르름이 들어 올리는
 저 힘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가 우리 땅 대추마을에 들어서기 열달 전, 무너진 담장에 쓰여 있던 시)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져 그들을 처단하던지, 수천 수만의 군마가 몰려와 그들을 몰아내던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리라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 멈춰봐봐, 이것 좀 보라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맑은 눈으로 찬찬히 살펴 봅니다.
들풀 씨앗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푸르름이 들어 올리는 평화의 나라 말입니다.

열일곱 번째 날_3월 8일 (월요일)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인 것을



하나님이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땅이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11-12 현대인의 성경>

나무 앞에서의 기도

아내의 유언은 단 하나였다.
 화장해 나무 밑에다 묻어주세요.
 너무 늦었어요 여보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세상의 거름 될 생각을 하다니
 나무의 허락을 받지않고
 나무에게 용서를 구하지않고
 나무를 베어 별장을 지었지 그대와 나
 나무를 베어내 책을 쓰고, 책을 내버렸지
 나무가 사라지니 등지도 사라지고
 뿔가루를 땅에다 묻고
 두 아이 손을 잡고 나무 앞에 둘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다.
 내 아내가 세상에 남긴 것이니 잘 거두어다오.
 더 푸른 녹음을, 더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다오.
 임종할 때 아내 모습같이 키만 큰 나무
 세 사람 유가족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인다
 이 겨울바람의 길을 안다는 듯
 모든 생명체의 길을 전부 다 안다는 듯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환경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이기주의적 태도가 환경 위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자연 속의 모든 요소들과 균형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간들 서로,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여덟 번째 날_3월 9일 (화요일)

북한 친구에게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잠언 17:17>
 너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네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 쏟듯 쏟아 놓아라. 너는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 가는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애가 2: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안녕? 나는 성은이라고 해. 직접 보지 못해도 직접 말 걸지 못해도 서로 마음이라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만으로도 난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 너도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났을까? 같은 민족인데도 말이야. 요즘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무력통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은 휴전선으로 남북이 갈려져서 쓰는 말도 다르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져서 더 힘있고 세계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겠지?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지금쯤이면 세계 으뜸 나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전쟁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하루가 멀다하고 왜 세계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어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럼 통일을 기원하며...
 안녕.

2008년 6월 10일
 남한에 사는 성은이가 (행복세상 블로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잘못된 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